

## 파격 수당 지급·전담부서 신설... 저출생 극복 '안간힘'

### 오늘 제13회 '인구의 날'

광주, 5년 뒤 140만명 붕괴 전망  
전남, 해마다 1만6000명씩 감소  
의료 인프라·출산·양육환경 개선  
"방치하면 전멸, 인구 증가 최선"

제13회 '인구의 날' (7월11일)을 맞아 가운데 인구 감소로 고심하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저출생과 청년 유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이 출생 이후 18년간 매월 수당 지급부터 월 1만원의 임대주택 제공, 인구·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까지 파격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인구 140만명을 넘긴 광주는 5년 뒤인 2029년 다시 14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전남은 최근 15년 사이 중소도시 인구 규모인 33만명이 줄어드는 등 양 지역 모두 인구절벽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5년간의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광주의 경우 지난 2019년 148만293명에서 2020년 147만1385명, 2021년 146만2545명, 2022년 145만4017명, 2023

년 144만4585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매년 8927명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속도라면 늦어도 5년 뒤에는 140만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04년 140만명을 돌파한 지 25년 만이다.

전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19년 186만8745명에서 2020년 185만1549명, 2021년 183만2803명, 2022년 181만7697명, 2023년 180만4217명으로 매년 평균 1만6132명 감소하고 있다. 구례군 전체 인구가 2만4466명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구례 인구의 65%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1998년 3750명이 순유입된 이후 22년째 지속되고 있다.

출산율도 해마다 줄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광주의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2022년 0.84명과 비교해 0.13명이 감소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전남은 좀 나은 상황이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1년 전보다 60명 감소했지만 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전남의 가임 여성이 감소한 상황이 반영돼 2022년과 같은 0.97명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양 시도는 저출



광주시내 먹구름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10일 광주시내 하늘에는 먹구름과 파란하늘이 교차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생과 청년 유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책을 쏟아내고 있다.

광주시는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을 '서남권 거점도시 중심성 감소'로 파악, 광주의 매력도와 중심성을 강화하는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하

고 있다. 이 계획에는 3개 주요 분야인 △저출산 해결 △청년인구 유출방지 △생활인구 증대 등의 정책과제 발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성 있는 인구전략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 광주연구원 및 실무부서, 분야별 전문가와의 유기적 소통을 통

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 중이다.

광주시는 특히 지역 미래를 좌우할 인구·교육·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담당관을 두고, 문화경제부시장 산하에 교육청년국을 신설했다.

▶ 3면에 계속 노병하·오지현 기자

## 이재명 민주 당대표 출마 선언... 연임 도전 공식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실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를 살려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라며 인공지능(AI)과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를 강조했다.

그는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 고, 희망을 가지고 새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

할, 정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본사회'에 대한 구상을 재차 밝히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 가장 중요"  
"지선·대선 승리... 당원중심 대중정당"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당의 의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당대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이에 따라 당대표 선거는 이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이날 출마를 선언한 청년 인사인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간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 전 대표가 대표직 연임에 성공하면 1995~2000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연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번째다.

▶ 관련기사 6면 서울=김선욱 기자

##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에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유) 탐환경건설



(주) 탐앤제이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20  
Tel 062)376-5599 Fax 062)376-0094